

## 경기도

### ▶▶ 화성시, 가축방역시책 최우수 기관 선정

농림수산식품부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가축방역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화성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9월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소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닭 뉴캐슬병 발생 감소에 있어 타 시·군에 비해 탁월한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가축혈청검사 실적 역시 도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계도 실적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성시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해 지난 2006년도 소 브루셀라병 방역평가 우수상 수상, 2008년도 가축방역평가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 가축방역부분에 있어 도내 최고 기관임을 입증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방역대책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가축방역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강원도

### ▶▶ 가축방역 정부 합동평가 우수상 수상

강원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0년 지자체 대상 가축방역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월 3일 밝혔다.

가축방역특별포상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

역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가축방역분야 시책별 평가항목으로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 및 발생감소율, 돼지열병·닭뉴캐슬병 항체 양성률 등 국가의 주요 가축방역 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실시되며 강원도는 모든 평가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전국 가축방역기관 평가에서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가 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시·군별 평가에서는 횡성군이 최우수상, 영월군이 우수상, 강릉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 충청남도

### ▶▶ 연기군, AI 차단 방역교육 성료



연기군은 지난 9월 20일 소·돼지·염소·사슴 등의 우체류 사육농가와 닭·오리 등 가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역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연기군 산업과 축산담당 주관으로



충남도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신용욱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 구제역과 시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와 예방대책 추진상황 등에 관해 축산농가 가축방역 정책, 농가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올해 초 전국은 강타했던 구제역과 시 등 가축질병 재발방지에 동참하고자 5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이날 교육에 참석한 농가에는 '가축질병 방역교육 수료증'을 교부하고, 향후 가축방역 및 축산사업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군 축산관계자는 "가축방역 정책을 이해하고, 농장 단위 방역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향후 정기적으로 가축방역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상북도

#### ▶ 예천군, 가축방역시책 우수기관 선정

경북 예천군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0년도 가축방역 특별포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축방역 특별포상 평가'는 가축방역시책 추진 실적 우수 지자체에 대해 특별포상을 실시,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가축방역대책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소 브루셀라병 검사율과 발생 감소율,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양성률, 닭 뉴캐슬병, 가축혈청검사 실시율 등 가축전염병 방역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얻어 우수기관으로 선정

됐다.

특히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단체,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축방역에 열과 성을 기울인 결과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과 구제역 예방 시책의 지속적 추진 등 각종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며 "농가들도 자체 소독실시 강화 등 가축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

#### ▶ 닭·오리 사육 동물복지형으로 개선

전남도는 지난 9월 15일 시 방지를 위해 닭·오리 사육환경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고, 방역 추진실태 점검반을 운영해 상시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육환경이 나쁜 농가의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경우 정책자금 중단은 물론 병아리 공급까지 차단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8월 도내에서 닭·메추리 1,000마리 이상 또는 오리 16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 1,001곳을 대상으로 사육환경 실태조사 실시해 31%인 306곳에 대해 축사시설을 개선(232곳)하거나 아예 이전(36곳)토록 권고했다.

도는 시설개선이나 이전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사육밀도도 적정기준으로 유지하고, 가축을 일시에 입식하고 일시에 출하하면서 축사소독을 실시하며, 농가에 병아리를 공급할 때에는 부화장에서 소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 **시 재발 방지 위한 선제적 방역 총력**

전라남도는 도내 닭, 오리 사육농가, 시·군 방역 담당자, 계열회사, 축산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3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발생한 고병원성 시는 농가 사육환경 열악에 따른 자연 면역력 저하로 전염병에 쉽게 감염되고 농장 차단방역 소홀로 오염된 농장을 출입한 차량, 사람 등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번 순회교육에서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농가 현장 방역의식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시 선제적 방역대책은 농장 등급별 관리 강화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 농가 차단방역 강화 및 이행실태 집중 점검, 교육·홍보를 강화해 현장 방역능력 향상,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요소에 대한 상시검사 등이다.

또 도, 시·군, 방역관련 단체, 계열업체 등 전문가로 시 방역 추진실태 점검반을 운영해 사전 차단 방역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화예찰이나 시료 채취를 통해 고병원성 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대책보다는 본질적인 예방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축 사육밀도 준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기시설이 불량한 축사 등에 대한 축사 환기 개선, 햇볕 등 자연 면역력 획득으로 질병예방에 힘써줄 것과 질병이 의심되는 닭, 오리 등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남원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남원시는 FTA, DDA협상에 따른 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와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 증가, 소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축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축종별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닭, 오리 등 가금류의 경우 계열업체 중심의 품질고급화와 안전성 확보로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기하였고 열풍기, 환기팬 등 사육환경개선과 수분 조절을 위한 왕겨보급사업을 중점 추진했으며, 생균제 지원으로 악취절감과 폐사축 감소 등을 통해 생산비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철저한 차단방역과 예방위주 방역시스템 강화로 질병 미발생 청정지역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방역약품지원, 소 브루셀라채혈, 돼지싸코바 이러스 예방약품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질병·위생지도지원 등 7개 분야에 16억 4,000만원을 투입한 바 있다.

▶▶ **강진군, 축산단체 임직원들과 간담회 개최**



강진군이 지난 9월 22일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2012년 축산분야 신규 자체사업



의견수렴을 위한 축산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강진군 축산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오리협회, 흑염소협회, 양봉협회, 조사료경영체 등 각 축종별 대표자 및 총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간담회 및 2012년 예산반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각 단체별로 사전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축종별 대표자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축산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현대적이고 보다 위생적인 사양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제안해 축산 종사자들의 의식이 변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더욱이 축산팀 김병용 주무관은 “우리군 축산분야가 발전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토의할 수 있는 장을 수시로 마련하는 등 축산업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그동안 친환경축산과 축산물 명품 브랜드,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 전국 광역 시도 및 가축방역기관, 시·군·구 가축방역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황금한우, 황금닭 등 우수 브랜드 개발에 힘써왔다.

특히 올해는 ‘가축사육농가 80% 이상 친환경 축산물 인증획득’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축산농가와 행정의 하나가 되어 사육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 전라북도

#### ▶ 닭·오리농가 AI 일제 예방

전라북도는 지난 9월 18일 철새철을 앞두고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예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북축산위생연구소에 따르면 종오리 및 육용오리에 대한 AI 사전 예찰검사는 10월 11일까지 모든 종오리 및 육용오리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금강 주변 철새에 이어 일부 인근 사육농가에서 AI 항체를 검출해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갔던 전북도는 이번 검사를 통해 종오리 농장 25개소와 육용 오리 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을 실시해 AI 유입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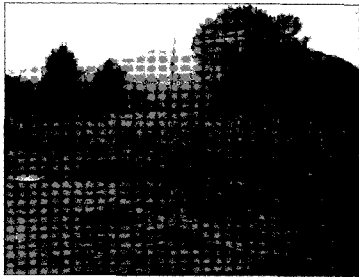
전북축산위생연구소는 상반기 중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AI 검사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전북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겨울철새 도래철을 앞두고 오리농가와 닭 사육농가에 대해 AI 발생저지를 위한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며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축산당국과 축산위생연구소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 부안군, ‘우리맛닭’ 생산 시범사업 성과

부안군이 뽕밭에 자연 방사해 발효사료로 기른 ‘우리맛닭’이 유망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축산물 가공 부산물을 사료로 재활용하고 자연방사를 통해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 ‘우리맛닭 생산 시범사업’을 지난해 10농가를 대상으



로 추진한 결과 구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군은 친환경 사육방식으로

생산한 '우리맛닭'이 차별화된 고급육으로 시장에 진출할 경우 양계농가의 소득 증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까지 국비 3억원 등 모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현재 사육중인 '우리맛닭'은 농촌진흥청에서 15년에 걸쳐 육성한 우리 고유의 순계품종이다. 콜라겐 함량이 높아 육질이 쫄깃하고 구수한 맛을 내는 향기 성분이 많아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부안군에서는 병발에 닭을 방사하고 특화 작목인 오디 부산물을 활용한 발효사료를 먹여 차별화된 친환경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다.

부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맛닭에 대한 우수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구입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입, 양계 농장 중 시설 개선이 시급한 순위에 따라 시설 개선 및 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추진 사업을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총 2억5천800만원을 투자, 5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양계단지 1개소를 대상으로 2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중열을 이용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범 추진 중에 있고 5천만원을 들여 노후 양계장의 시설 보완 사업도 실시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올해 2억8천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계란집하장 시설 보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타 시·도에 제주산 계란 유통 확대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 계란집하장 설치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금년도에 3개 농가에 LED 조명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13년까지 관내 전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관내 양계 농가는 98가구로 사육두수는 121만6천여 수에 이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 ▶▶ 올해 양계사업장 시설 현대화 8억6천만원 투입

제주시가 양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계사업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제주산 닭고기와 계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총 8억6천100만원의 사업비를

# 시 신고 전용 전화

## 1588-4060 / 1588-9060